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12.24. ~ 2019.1.17.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처음에는 기숙사 별로여서 실망했지만, 뭔가 고장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바로 수리해주시고, 침대도 편안하고 에어컨도 시원해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수업	첫날과 처음 3일은 선생님들과 친해지는 날들이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꾸만 저에 대해 말하라고 시키고, 답을 하면 왜?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해야할지 몰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이렇게 안맞아서 어떻게 친해지지? 걱정을 했지만, 열정적으로 알려주시는 선생님과 수업 시간 틈틈 나누던 대화 덕에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Activity	액티비티는 항상 조가 바뀌어서 적응을 못할까 겁이 났는데, 40명이라는 명수에도 불구하고 모두 친해져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저는 하루도 빠짐 없이 시내로 나갔었는데.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더웠던 날은 2일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날씨가 괜찮았고, 비온 날은 선선하고 돌아다니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안전	잃어버리거나 위험했던 상황은 없었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input type="checkbox"/>) 외부 숙소(<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 에어컨 소리가 커서 잘 때는 끄고 잤습니다. 그래도 찬바람이 남아있어 더위를 많이 타던 친구도 잘 잤습니다.
식사	학교식당(<input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식당 (<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 학교 식당은 국을 참 잘 끓이십니다. 그리고 아침은 빵과 밥이 며칠 간격으로 바뀌며 나옵니다. 아침으로 나오는 참치샌드위치는 참 맛있다는데.. 저는 못먹어서 한입니다 πππ 외부 식당은 사람들이 추천해주는 곳 외에도 끌리는 곳 있으면 다 가보세요!! 저는 아무대나 다 다녔는데, 좋은 곳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교통	학교에서 FB 타고 내린 곳에서 학교로 돌아올 때도 타면 됩니다.(큐비라인) 그리고 택시는 인당 50 생각하면 되는데, 2명에서 타면 250을 대체로 부르시고, 양심 있는 분들은 150 부릅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출국 전 사전 납부
달러 400		
카드결제	10만원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저도 이것저것 준비하고 영어 공부하러 가니까 공부 좀 해가자 싶었는데... 노느라 복습도 안하고 열심히 놀고만 왔습니다^^,,
캐리어만 큰거 잘 준비해가세요. 기념품으로 살만한건 별로 없어요.
망고는 첫날에 사두세요. 집 돌아갈 땐 다른 사람들이 쓸어가서 하나도 없어요ㅠㅠ...
마그넷이나 예쁜 잔은 한국 돌아가는 클락 공항에서 구입하시고, 공항 먹을거 엄청 비싸니까 가방에 챙겨가세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영어로 말하는게 두렵고, 어떻게 말해야하는지도 몰랐는데 이번 어학연수를 통해서 입과 귀가 많이 트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놀러 나가서 놀았지만 더 놀걸 후회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